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6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여름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시원한 그늘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욕망의 열기로 혼미해진 영혼을 식히기 위해서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일고 있는 생각들이 때로는 거센 풍랑이 되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주님을 모실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분단의 현장에서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야 합니까. 아벨의 피맺힌 울음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이 땅을 이제는 치유해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일꾼들로 삼아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쌓아올린 분단의 장벽부터 허물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15 시편51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황건호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72. 인류는 한 되게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10:40-42 .....	인도자
	II. 창4:8-15 .....	정현주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우리가 받을 상급 .....	장영숙전도사
	II. 피흘림이 없는 세상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61. 주의 주실 화평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온몸으로 증거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영원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랑노래가 이 어둔 세상을 밝히는 햇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3회 신앙강좌(최종수 목사)	에베소 강해(11)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 영성	기도 : 최숙화 권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인걸 권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김인걸 권사

<b>6월</b>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범희	김애경	표명화	박현우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근종	김훈동	김필순	노순옥

## 믿으면 경험한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말해줄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구?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짝 조여 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음, 내 생각엔 이 짝 조여오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로 같은 소리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산이나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고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 이전에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으면 경험

하게 됩니다.(헨리 나우엔, <<죽음, 가장 큰 선물>> 중에서)

##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 위장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해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로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되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 하나님의 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상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의 이상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 모든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상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힘이야말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 이상을 깨닫게 합니다.

## ■ 마/음/으/로/읽/는/글

### 꿈을 접으며

성자聖者가 되고 싶었다.  
길이 저만큼 보였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용기가  
모자랐던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힘이 만만찮았던지  
걸음은 날마다 비틀거렸고  
길을 갈수록 멀어만 갔다.

이제 반백半白이 되어  
성자되는 꿈을 차분히 접어두고  
아아, 나는 한 마리 순한  
짐승이 되고 싶을 뿐이다.  
성자의 길도 버리고  
의인의 길도 버리고  
그냥 착한 아무개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

언제고 이 가난한 꿈마저  
고요히 접어  
맑은 한 줄기 바람처럼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이현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박창운 허정윤 이광용 형인순 한선희  
 최종원 백승민 정완수 김재광 임 영 정경례 김혜권 박정숙 김순복 전영웅  
 박재실 안경숙 김종훈 왕성환 강순배 염혜영 임보람 박옥순

### 월정헌금:

이지훈 서재홍 박현우 유증희 이재문 정진경 허광식 문금석 황원순 황자순  
 김성자 김종문 지명주 이갑재 정원석 김현영 이병철 김현진

### 감사헌금:

김재흥 최숙화 김정길 하정석 이명희 박순성 김중구 박준희 이기분 신현민  
 신윤희 다메섹속

생일감사헌금: 윤석철 김근종 정옥영 김현진 이병철

구도헌금: 김철수 윤석철 장혜숙 최경연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조 순 덕	김 애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서 정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건 화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임 창 선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이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한 선 희	최 정 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이 영 옥	안 흥 속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김 희 우	백 혜 속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혜 경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조 향 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6월 정기 임원회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2005년 제3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최종 수 목사님께서 <빈센트 반 고흐의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3.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7월 1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4. **유치부야외예배** : 다음 주일에 유치부가 과천대공원으로 야외예배를 나갑니다. 11시에 출발하여 오후 3시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5. **연합속회** : 7월 15일(금)에 모이고, 속회 방학에 들어갑니다.
6. **신앙실천** :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을 새롭게 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지요?

**7월 봉사자** : 안내 - 방문성 김인걸 박석희 송양진 이증자 이건화  
 헌금 - 윤석철 이인웅 김준호 광혜자 배삼순 박혜경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헌화 : 김준호 권사 (부모님 추도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